

군산시, AI 조기종식 위해 방역 총력

방역근무자 증원·이동통제 초소 확대 등 시스템 강화

발원 농장주·중개상 경찰 고발 등 불법 매매 집중 단속

조류인플루엔자(AI) 발원지로 지목된 군산시가 조기종식을 위해 방역활동에 총력을 쏟고 있다.

13일 군산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AI 거점소독시설 근무 인원을 늘리고 이동통제 초소를 확대 운영한다.

시는 서수와 개장에 운영 중인 거점소독

초소 인원을 기존 3인 1소에서 4인 1소로 보강하고, 대규모 사육농가 인근에 이동통제초소 17곳을 신규 설치했다.

군산시는 또 시청사 내 발원 소독소 설치, 도태작업 후 잔존물 처리 철저, 초소별 근무점검 강화, AI 방역근무자 위생·안전 조치 등도 실시한다.

시는 방역 당국 조처에 따라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과 가든형식당의 가금류 유통을 전면 금지하고, 생닭이 불법적으로 판매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문용목 군산시 공보담당관은 “가금류 사육농가 예방과 정기 방역소독활동을 한층 더 강화해 AI를 조기 종식하려는 조치”라며 가금류 농가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산에서는 지난 3일 서수면 오골계농장에서 첫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5

건의 의심 신고가 추가 접수돼 총 6개 농가의 가금류 1만3천431마리가 살처분됐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특히 AI 사태의 발원지로 지목된 오골계농장의 농장주 김모(63)씨에 대해 오골계 폐사 사실을 숨기고 유통하는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이 농장으로부터 오골계를 사들여 전통시장에 내다 판 익산의 증개상 2명도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군산=박금석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전동평(왼쪽 두번째) 영암군수는 최근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해 가뭄 대처 현황을 점검했다.

영암군, 가뭄 장기화 대비 만전

피해농가 방문활동 ... 7억원 투입 양수시설 지원 등

전동평 영암군수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해 현장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영암군은 “전동평 영암군수가 최근 가뭄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농가와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가뭄 대처 현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전 군수는 이번 가뭄현장 방문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지역 농민들의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고, 가뭄에 따른 지역민의 불편도 최소화하도록 지시했다.

전 군수의 이번 가뭄 현장 방문은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영암군의 강수량은 지난 7월 기준 124.4mm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453mm에 비해 37.6% 수준이다.

영암관내 227개소 저수지의 저수율도 평균 50.1%까지 떨어졌다.

이에 따라 영암군은 지금까지 가뭄 대책 추진상황으로, 한발대비 양수장 2개소에 7억2300만원을 긴급투입 했으며, 이 밖에도 11개 읍면에 수리시설 유지보수비 1억1600만원, 관정개발 5공 6800만원, 신북호동제 물체우기, 신북면 덕산들 중형관정 개발, 가뭄대책 사업비 7000만원 등을 확보해 가뭄 장기화 극복에 집중하고 있다.

영암군은 앞으로 군 예비비예산을 투입해 양수장비 등을 우선 구입·지원하는 한편 가뭄극복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영암군은 이와 함께 전남도 및 중앙 정부를 대상으로 가뭄 극복에 필수적인 한발대비 양수장설치 5개소와 관정개발 9개소 등에 투입할 국·도비 23억원을 긴급 지원해 줄 것을 적극 요청하기로 했다.

영암=전통기자 jibh@

어촌 특화개발사업

보성 객산마을 선정

보성군은 “최근 해양수산부 주관 ‘2018년 어촌분야 일반농산어촌 특화개발사업’ 국비 공모사업에 회천 객산마을이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보성군은 그동안 공모사업에 대비해 심사서류 준비,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 등 사업 선정을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해온 결과, 지난 4월 해양수산부의 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군은 내년부처 2020년까지 국비 21억원을 포함해 총 30억원의 사업비로 회천 객산마을에 어촌 특화개발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요 사업은 특산물 청정 갯벌에서 바지락 잡기 등 체험장, 리아스식 해안을 배경으로 한 휴양시설, 농수산물을 싼 값에 직거래할 수 있는 직매장시설 조성 등이다.

특산물 청정해역은 그동안 지리적, 입지적으로 좋은 여건을 갖추고도 인프라 시설 등의 부족으로 관광객 유치가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이번 국비 공모사업 최종 선정으로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보성=김용백기자 kyb@kwangju.co.kr



“내 손으로 모 심고 쌀 소중함도 배웠죠” 정읍 모내기 체험행사 성료

(주)유기농비건 주관

김생기(왼쪽 세번째) 정읍시쌀은 최근 이평면 세곡마을에서 사회적기업인 유기농비건(대표 채운자)이 주관한 전통 손 모내기 체험행사에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백암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정읍 자애원, 나주 부활의 집 회원 등

100여명이 함께 했다.

유기농비건 관계자는 “기계식 모내기에 자리를 내준 전통 손 모내기를 체험을 통해 조상들의 지혜를 이어받고 전통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생기 시장은 “이번 체험 행사가 우리 쌀과 밥상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계기가 될

은 물론 지역 쌀 소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주)유기농비건은 유기농쌀과 조청, 쌀과자 등의 유기농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업체로, 자연 친화적인 유기농법을 실천하며 좋은 먹거리를 보급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정읍=백기섭기자 parkks@kwangju.co.kr

전주시, 임대료 일방 인상 횡포 부영 고발키로

5%→2.6%로 인하권고 거절

고액 임대료에 서민불만 높아

전주시가 고액 임대료로 서민을 울린 임대아파트 사업자를 고발조치 하는 등 일부 건설업체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기로 했다.

물가상승률과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지 않은 임대료 인상으로 서민에게 많은 부담을 준 임대아파트가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전주시가 임대주택법(제20

조)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비물가지수(1.9%),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의 평균치(1.57%)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2.6%) 권고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전주시는 “해마다 일방적으로 임대료 인상으로 횡포를 일삼는 (주)부영을 시에서 제시한 ‘임대료 인상률 권고 사항 미이행’을 이유로 고발조치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주)부영은 매년 부영 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의 전세

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율이 정한 임대료 증액 상한선인 5%를 적용하고 꾸준히 인상했다.

이같은 과도한 인상 때문에 임차인들의 불만이 커지면서 갈등을 빚었다.

전주시는 “헌법상 임대주택의 연간 임대료 인상을 상한선이 5%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해당 임대사업자는 경제여건과 주변시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임대료를 일방적으로 5%씩 인상해왔다”고 설명했다.

전주시는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주)부영측에 2.6% 범위 이내로 인하 조정하도록 권고했지만 거절되자 이번에 고발조치를 결정했다.

전주시는 이후에도 상응하는 모든 법적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박선이 덕진구청장은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개정을 건의하고 공론화 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특히 열악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확충과 건물 하자로 인한 임차인들의 고통 해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선기자 lucky@연합뉴스

여수산단 50주년 지역발전 심포지엄

여수상의 16일 개최

여수상공회의소는 16일 여수엑스포 기념관 1층 그랜드 홀에서 여수국가산단 출범 50주년과 지역발전 심포지엄을 연다.

여수상공회의소 등이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여수국가산단단지가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법과 혁신 공간으로의 변모를 위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남기범 서울시립대 교수가 ‘여수국가산단과 지역발전 과제’를 발표하고 류승한 국토연구원 센터장은 ‘여수국가산단 과거 50년을 되돌아본다’를 주제로 의견을 제시한다.

이어 정은미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

이 ‘여수국가산단의 미래 50년을 설계한다’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 발표에 이어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연구원, 여수지역경제포럼, 대학, 산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패널이 여수국가산단단지의 미래와 지역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을 한다.

여수국가산단단지는 1967년 여천공업단지를 시작으로 1980년 여천석유화학단지가 준공됐으며 2001년 여수국가산단단지로 명칭이 변경됐다.

SG 칼텍스와 남해화학, LG화학, 여천NCC, 호남석유화학, 한화석유화학, 삼남석유화학, 제일모직 등 250여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여수=김창화기자 chkim@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급대 장흥군 수문해수욕장 3548㎡ 은행 1억3천 매도 3억7천
- 화순군 동백면 가수리 1877㎡ 요양주택·사할도 적합 6800
- 시골주택 담양 봉산면 연동리 대지 952㎡ 주택 55㎡ 1억6천
- 남평읍 우산리 대지 774㎡ 광주에서 15분거리 6700만원
-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땅 32454㎡ 판선과 농장적합 5억

주택·원룸·아파트

- 월산동 2층 상가 주택 대지 133㎡ 건평 143㎡ 1억4300
- 월산동 고급주택 농성초교부근 대지352㎡ 주택168㎡ 5억2천
- 월산동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126㎡ 2층주택 1억 6백
- 월산동 4세대 생활가능지 대지 313㎡ 집146㎡ 교환가 2억5천
- 월산동 원룸 중 3층 23㎡ 독립생활적합 2300만원

투자·매도·교환

- 독립심 56233㎡ 신안군 암태면 새천년대교 인근 3억5천
- 월산동 보라아파트부근 상가1층 65㎡ 다용도임 6300만원
- 서구 마북동 2251㎡ 다용도 건물 신축 적합 21억
- 화순읍 복숭아·매실·감나무농장 40059㎡ 매도 10억5천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5천

상가건물

- 월산동 대지 160㎡ 건물 419㎡ 4층임 전세3천 월3000선 5억7천
- 월산동 새마을금고부근 2층식당건물 대지 226㎡ 매도 4억2천
- 서구 교동요지 대지 1657㎡ 건평 7768㎡ 요양병원등 적합 49억
- 월산동 농성초교나면 6세대 대지 206㎡ 건평 328㎡ 3억6천

감정가 이하

- 유통 좋은 모텔 대지 422㎡ 건평 984㎡ 김정12억선 교환가능 8억
- 해남군 신안면 식품공장 등 적합 17344㎡ 김정 24억선 매도 12억5천
- 무안군 삼함읍 용포리 5813㎡ 투지에 안호 2억천
- 무안군 일로읍 죽산리 4137㎡ 김정 2억5200 은행 1억7600 매도 1500
- 무안군 삼함읍 용포리 1969㎡ 투지에 좋은 720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신안동, 해송빌라

- 광주 북구 신안동 353-16
- 21평, 5층중 3층, 2012년 신축
- 방3, 거실1, 전망좋은
- 신안다리 바로 옆, 내부깨끗
- 시세-1억 2천만원
- 매매-9천 9백만원, 즉시 입주가능
- 주인직매

H. 010-3605-5000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점포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금호동 6층 건물(보증금 2.4억 월1,500만) 매 36억원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80만) 매 25억원
- 축석동 5층 건물(보증금 3.4억 월1,500만) 40억원
- 하남동 3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0억원
- 월계동 12층 상가점포 720㎡ 매28억(보2억원, 월1,200만 포함)
- 월계동 1층 상가점포 150㎡ 현 의류점 입점 매 13억원 (보1억5천, 월5백만 포함)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460만) 매 25억
- 쌍암동 4층 건물(보증금 1.3억 월 1,400만) 매 29억
- 쌍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450만) 매 35억
- 신가동 4층 건물(보증금 6천만 월 520만) 매14억
- 송정동 2층 상가건물 대385㎡ 건물500㎡ 매 13억

토 지

- 용전동 생산녹지, 대로접 9,400㎡ 매 48억원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3,810㎡ 20억
- 산정동 생산녹지 창고용지 도로접 990㎡ 5억원
- 광산구 대신동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45억 (물류창고, 아차장 적합)
- 광산구 내산동 임야 36,000㎡ 매 3억
- 남평읍 우산리 계획관리지역 답 3426㎡ 4억2천만원 (가든식당 적합)
- 장성군 삼서면 흥정리 대지 1316㎡ 매1억4천(지대농음, 남향)
- 담양군 수북면 수북리 계획관리지역 전 5,000㎡ 매 8억3천
- 담양군 월산면 계획관리지역 전 30,000㎡ 매 16억원
- 담양군 남면 학산리 대지 1390㎡ 매 3억1천만원
- 담양군 대전면 대치리 창고용지 4,500㎡ 매 21억원
- 담양군 봉산면 기곡리 전 3,000㎡ 매 1억8천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정덕동 롯데마트 부근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광주일보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디팅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